

2018 · 04



암환우와 그의 재화를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호주호스피스협회

(Kor) www.sydneyhospice.com.au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Eng) www.australianhospice.com.au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NSW, March 12 2018 (위)
오카리나 연주(Ocarina Playing)-김경옥 봉사자) (아래 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걸기(호주 정부 Aged Care 자격증과정 실습과 유방암 진료 안내 2018.2.24) (아래 우)
Walk along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 (Aged Care Certification Practice and Breast Cancer Care Guide)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9)

And shall come forth; they that have done good, un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ey that have done evil, unto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KJV) (John 5:29)

월간 • 통권 8호
(Vol. NO. 8)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우와 그의 제할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018

04

C·O·N·T·E·N·T·S

02 호스피스 실습(Aged Care)
을 다녀와서- 소감

06 ACC 호스피스 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용하고 숲 속에 자리 잡은 Woodlands Nursing Home 에서 가졌습니다. 전체 봉사자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았으며, 즉석에서 김경옥 봉사자는 오카리나 연주로 모든 참석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 마음으로 율동을 하면서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Helen Ruth Dicker 교수님은 United Theological College (UTC)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으며, 본 회 대표인 김장대 목사가 공부할 당시(1989년) 학장이셨던 Gordon Dicker 교수님의 아내인데, Gordon Dicker 학장님은 2년 전에 이곳 Woodlands Nursing Home 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콘서트 날은 Helen Ruth Dicker 교수님의 85세 생일이어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Aged Care 자격증 과정 실습생이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월 24일에 송진아 의사님께서 유방암 진료에

호스피스 실습(Aged Care)을 다녀와서- 소감

- 안진숙 (호스피스 실습(Aged Care)생)

몇 달 전 내가 공부하고 있는 수업의 한 코스로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 활동내용은 암환우와 그 가족 분들과 함께 바닷가 산책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아침에 모두 모여 그날 정해지는 조금 험한 코스와 덜 험한 코스로 나뉘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여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한다. 모두들 배낭을 메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름다운 바닷길을 옆으로 즐거운 산행을 즐기는 그 분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말 그대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어느 노랫말을 떠올리게 했다. 여유로움을 느꼈다. 나도 모르는 원지 모를 평화로움묘한 기분이었다.

산등성이를 오르고 다시 모여 먹는 꿀맛 같은 점심식사 후 건강을 위한 체조 건강박수 바닷물에 발 담그기 음악에 맞춘 율동 등을 따라서 하는 어르신들의 맑다 못해 순수한 아이들과 같은 눈빛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시름도 없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서로 나누는 음식, 따뜻한 말과 미소, 격려의 눈빛.....정말 환우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이 옆에서 보는 나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날 같이 참석해주신 다른 봉사자 분들을 보며 여태껏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바쁘게 정신 없이 살아온 내가 너무나 작아 보여서 몸둘 바를 몰랐다. 한번도 둘러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묵묵히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내려오는 내 발걸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실렸었는지.. 부끄러웠다.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또 다른 행사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방문하여 연극, 무용, 연주, 합창 등을 통해 환우 분들과 그곳에 계신 노인 분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그 노력의 흔적이 잘 담겨진 훌륭한 공연이었다. 그분들의 공연을 감상하며 한국에 홀로 계신 친정엄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진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노인 분들의 얼굴에서 세월을 치러낸 역경만큼 파여진 이마의 주름에 대한 애잔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공연에 임하는 봉사자 분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는지와락 눈물이 쏟아져 나는 것을 목구멍을 눌러 억지로 삼켰다.



위) 제20차 콘서트- 호스피스 봉사자의 율동과 웃음치료 시간 (Laughter Therapy Leader: 채순자 봉사자)

아래) 드라마 치료 -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호스피스 봉사자의 모습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자의 삶을 그리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소통’과 ‘교감’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고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한번 생각해 볼일이었다 .감히 봉사라는 말로 누군가에게 어쭙잖은 친절 정도를 베풀 요량으로 먹어왔던 내마음이 보기 좋게 무너진 하루였다.

‘봉사’불확실했던 의미가 내 머릿속에서 좀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다. 진실한 마음 그 ‘마음’ 이 없이는 그 어떤 봉사도 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 ‘마음’을 담아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가져보며

어쩌면 내인생의 turning point 가 될지도 모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저희 학교 강민영 선생님과 김장대 목사님 그리고 다른 봉사자 분들께 감사 드리며 환우분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After I went to practice hospice volunteer to get the Certificate of Aged Care

Jin Sook An

Few months ago, I participated in a volunteer activity for my course requirement.

The volunteer activity involved bush walking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ound Sydney coastal trails, enjoying the fresh air and having a pleasant fellowship.

We first gathered as one group in the morning and took various trails suited to one's own fitness level and began the journey. Each wearing a backpack, watching everyone chatting away while admiring the beautiful scenery, I suddenly remembered the old lyrics "people are more beautiful than the flowers". I felt extremely relaxed and peaceful.

After walking for some time, we had our lunch and a brief group exercise, then we played by the water. All the while, the eyes of the members sparkled with joy and their faces wreathed in smiles just like innocent children from a fairy tale.

Sharing food, warm encouragements, and laughs with each other, I felt the sincere love and care from the ACC family for the patients.

And just watching other volunteers, I became extremely ashamed of myself. It suddenly hit me how much I've been bustling with life only for myself while so many neighbours reached out to the community in every possible way spreading love for others.

After the self-reflective bushwalking trip, I also had an opportunity to join the ACC's Hospice Concert.

The concert was an outstanding work of art. The hard works and practices of the performers were so apparent from the quality of performances they poured out on the stage to the patients. I'm not sure whether it was because the captivated stares of the patients reminded me of my mother back in Korea or the passionate voices and movements of the volunteers, but I had such a hard time restraining myself from bursting into tears throughout the entire program.

We live on this earth in so many different styles and in our own unique ways. I wonder how my life looks like and if I am living in the 'right way'.

I have gained so much through my two experiences in the ACC. I have learned that successfu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people do not necessary



위) 크로마 하프 연주와 함께 전체 봉사자의 환우
치료현장
아래) 드라마 치료의 이모 저모

require words but only the heart for one another. I have once again realized there are so many others around me who strives to live not only for themselves but for others. And I truly want to reconsider how I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When I signed up for the ACC volunteering, I didn't think too much about 'volunteering' in general; I just thought it was merely about assisting someone in need. However, I was so wrong. Volunteering is all about having the heart for others and without that core value, any actions are meaningless.

Therefore, I hope from now on, that I create more opportunities to give this loving 'heart' to others. And I want to thank my teacher Min-young Kang, Reverend Jang Dae Kim and the rest of the ACC members for granting this turning-point-experience to me and I wholeheartedly wish speedy recovery for all of the patients.

Meaning of "Checed Healing" Hospice Concert

We have the "Concert and Performance" once a month in order to help the mental health of cancer and the high care residents. Since October 2017, by making a Checed (Meaning: God's mercy, kindness; the etymology of 'Hospice') healing team we are finding a way to overcome cancer by treating the depression that is caused by cancer.

This Checed healing concert is a program that introduces the beautiful appearance of enjoying the life beyond death in this world and develops a dynamic life that regulates death. In other words, Confessed Apostle Paul's dynamic healing faith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1 Corinthians 15: 55-56). We are applying this Paul's words to ACC Hospice by pursuing a life of service with its neighbors. We are confessing that "Where, O cancer, is your victory? The sting of cancer is depression, and the power of depression is the selfishness". Thus all our volunteers including cancer patients share their talents with other patients.



크로마 하프 연주에 매료된 환우의 모습



“넬라판타시아” 감미로운 목소리로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솔로(양 사비나 봉사자)



땀과 열정의 Worship Dance (김경옥 봉사자)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8.3.12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 2018.2.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1.22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 2018.1.20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 2017.12.18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 2017.12.4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피)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함예배, 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13명 수료)
~10.6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 2016.8.20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장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NC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 2016.8.3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 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본 회와 자매결연된 대구동산호스피스회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18년 4월 24일(월)

장소: 대구동산병원

본 회의 추천으로 상기 교육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육기간 중 숙식을 무료 제공해 드리며, 상기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협약에 의해 본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수료를 인정합니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55세 이상인 수료자는 본 회에서 1개월간 인턴 과정 후 센터링크에 Voluntary Work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 미술치료 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미술로 내적치료 봉사하실 분

*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로 너싱홈 환우들을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실 분

* 영여특약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시

원하시는 분

●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정지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

(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병명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뜻 고칠 절령은 없다.

다만 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Meredith Nursing Home,
30-32 Meredith St. Strathfield NSW 2135

* 일시: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소식지ACC회계자료 (2 /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Jung whyn Woo	1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Jin Sook An	10	MEMBERSHIP FEE	인쇄홍보비	138.4	
Jung muk Lim	2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101	
Cheol Soo Song	12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Jung Hee Song	120	MEMBERSHIP FEE	식대및 부식비	215.5	월요김밥60+60+컵 외 95.5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경조비	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행사및 세미나	125.5	콘서트김밥60+과일 15.5+콩송편5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16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Peo Sim	50	Donation	보험료	254	
Yoon Me Kim	120	MEMBERSHIP FEE	water	0	
Eun Jin Han	50	Donation	First aid	0	
Jeung Bun Kang	20	Donation	Total	1029.75	
Han Nah No	120	MEMBERSHIP FEE			
GNA Support	100	은 Donation			
W23 interest	0.96				
W15 YVONNE HALL	100				
W15INTEREST	0.15				
수입Total	1081.11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Scope of ACC Activities)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데에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 홍보활동
 - ACC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감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 발 행 처: ACC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 (Eng) / www.sydneyhospice.com.au (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8년 3월 22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